



# 숲과 사람들

## forest & people

"숲과 사람들(Forest & People)" 2010년 5월 1일 (제6호)

수프로는 자연과 사람  
그리고 도시가 하나되는  
녹색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발행처: 생명의숲국민운동회 회원활동위원회 / 발행인: 회원활동위원회 위원장(박인호) / 기획/취재/편집: 회원소리 모임 / 화형기자: 박정선, 김양주, 김재원, 유성기, 배서준, 배영옥, 이정원, 정대현, 정자우, 조하수, 박서영 / 편집(디자인 담당): 박인호, 황지현 / 편집(편집 담당): 양승은, 안민지, 김광숙 / 컨텐츠지원: 허태영(정대현), 이형배(배영옥) / 자료: 신필성, 이수현

## 국립공원과 행락시설의 동거

'우이동 유원지'에 대한 짧은 견해

꽃샘추위라기 보단 동장군의 심술이었던 것 같은 초봄의 추위를 떨쳐내기 위해, 휴학 후 그다지 활동적이지 못했던 3월 한 달을 반성하기 위해, 그리고 '숲과사람들'의 기사를 쓰기 위해 봄기운이 완연한 4월의 어느 날, 기자는 '우이동 유원지'를 찾았다. 작년 여름 '우이동 유원지'를 처음 가본 기자는 무척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 오래 전부터 알기로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일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산속 깊숙이까지 음식점들이 들어설 수 있는지 의아해 했다. 그러한 의구심을 풀고 다시 한번 '우이동 유원지'를 찾게 된 것이다.

평일 늦은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곳 우이동 유원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계곡을 따라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동수단은 대부분 차를 이용하여 방문하였고 음식점마다 주차할 공간도 충분하였다. 각 음식점을 소개하는 간판에는 'MT환영'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 기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학생들이 MT를 가게 되면 옆에 여덟아홉은 장작불에 고기를 구워먹는다. 이때 어떠한 방식으로든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화기를 사용하게 되고, 조그만 방심에도 화재가 발



생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하다. 굳이 대학생들의 MT뿐만 아니라 이곳에 존재하는 모든 음식점들이 국립공원 내에서 화기를 사용하며 상행위를 한다는 것이, 적정한 인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취사를 한다 하더라도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 작년에 우이동 유원지를 방문했을 당시는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도심 내 여느 유흥거리 못지않은

화려한 조명들이 음식점들을 비추고 사람들은 더욱 북비어 차들이 줄지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다. 기자가 느끼 바로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과연 주거지에서 1km 가까이 떨어진 산 중의 계곡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해는 1983년이지만 1960년대부터 음식점들이

들어섰고 '유원지'라고 이름 붙여진 시기는 이미 오래전이라고 한다. '우이동 유원지'는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하여 서울쪽 우이령 길을 탐방하기 위해서는 꼭 지나쳐 가야하는, 아니 지나칠 수밖에 없는 장소이다. 들어가는 초입부터 '우이동 먹자골목'이란 간판이 눈에 확 들어오며 무척 이른 계곡을 끼고 우이령 입구까지 무려 1.5km에 달하는 아스팔트 도로 양 옆으로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들어서있다. 구청에 확인 해본 결과 약 56개소에 달하는 음식점들이 등록되어있다고 했다. 또한 이곳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는 북한산국립공원-우이분소 측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고차 6평의 인원으로 이곳 분소가 관할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 넓은 지역뿐만 아니라 '우이동 유원지'에 대한 감시, 그리고 야간 당직까지 서야하는 입장이다.

언제부턴가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친환경...', '에코...', '그린...', '저탄소 녹색...', 과 같은 정책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도심 내 녹지조성, 에너지 절약, 그리고 탄에 '친환경'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4대강사업까지...여기저기 환경이란 이름으로 벌여놓은 사업들은 많지만 정작 수 십 년간 우리 곁에 존재 해오던 자연환경의 보존, 하다못해 보호조차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무척 아쉬울 따름이다.

이정원 회원기자

## 나무은행, 버려지는 나무에 새 생명을

우리네 땀방울과 함께 나무심는 시기도 고이 지나가고 있다.

산에 들어 그리고 우리 동네에, 정성 들여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꾸는 일과 심어진 나무들이 훼손되거나 버려지는 일 없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일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서는 여러 유형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나무들이 생명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흔히 일어난다. 골프장에서 그렇고, 도로 건설이나 재개발, 작은 건설현장마저도 나무들은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지장물' 취급 받기 일쑤다. 결국 벌목되거나 폐기물 처리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 KBS 국민제안 방송프로그램인

'오천만의 아이디어'에서는 한 시민의 제안으로 '공사 허가할 때 나무은행 연결함 시대'라는 코너(제38회, 3월 7일 방송분)가 소개되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다. 이 시민은 "재개발 공사 때 많은 나무들이 베어지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나무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제안하게 되었다고 했다.

최근 들어 부쩍 지자체를 중심으로 '나무은행'이라는 제도가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다. 나무은행이란, 버려지거나 기증받은 나무를 한곳에 모아 심었다가 필요한 곳이 생기면 다시 심는 '재활용' 개념의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갈 곳 잃은 나무를 더 이상 골칫거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생명체로 인식한다는 점,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탄소흡수원으로서 나무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일정 구역 이상의 성목을 수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파악했다는 점 등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지난 연말 전남 나주시에서는 나무은행 활성화에 공로가 큰 담당 공무원들을 특별승진 시키는 깜짝 이벤트를 실시했다고 한다. 나주시청 산림공원과 송흥근 계장은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수목 가운데 조정적 가치가 있는 입목 37종 2064주를 나무은행 부지에 이식해 관리해 왔으며, 이를 조정공사에도 활용해 9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한 공로가 인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범사례에도 불구하고 나무은행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장기간 사용가능한 부지가 필요하고, 나무를 굴취해서 운반하는 비용과 유지관리비, 또 정식할 때 드는 비용까지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며, 예산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정성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나라 조정공 정책을 만들고 있는 산림청에서도 최근 '나무은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수목 굴취와 이식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국유림 대부 방안 등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일상에서 진행될 수많은 개발 앞에서 나무들을 구출하고 지켜내는 일은 기후변화시대 또 다른 사명으로 다가올 것 같다. 동물구호단체들처럼 머지않아 '나무구호단체'가 활약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정대현 회원기자

생명의숲 회원들이 만들어 가는 '숲과 사람들(Forest & People)'의 내용은 글쓴이의 자유로운 생각을 담은 것으로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 표방하는 정책 및 활동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숲과 사람들(Forest & People)'에 수록된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숲과 사람들(Forest & People)'에 대한 의견과 기사 그리고 콘텐츠 제공은 회원소리 모임방(http://community.fores.or.kr/membernews) 및 이메일(fores0318@naver.com)을 통해 받습니다.

\*다음호 원고마감은 다음달 10일입니다.

**‘아름다운 숲’ 수상 후 어떻게 되었을까? (제주편 ④)**

서귀포시 신홍 2리 동백마을 편

2009년 제10회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 ‘아름다운 숲지기’ 우수상 수상



유로 수백 그루의 동백나무 가지가 잘려 나가기도 하였다. 이에 마을에서는 또다시 훼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여 도로 사이에 보호막을 설치하였으며 폭이 좁은 길은 입방통행으로 변환하여 상당히

2009년 제10회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에서 아름다운 숲지기 부문 우수상 수상자인 신홍 2리 동백마을을 찾았다. 신홍 2리 동백나무 군락지는 제주도 지정 천연기념물 제27호로 마을에 접어드는 입구부터 동백나무가 가로수처럼 늘어서 있어 제주 돌담과 어울려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곳이다. 동백고장보전연구회 김현선 회장(45세)은 “2009년 아름다운 숲지기 수상 당시에는 사유지여서 동백나무 관리에 곤란한 점이 있었으나 2009년 12월 행정예산(산서귀포시청) 2억 원, 마을 자체 예산 3천만원을 투입해 800여 평을 매입하여 공유화시킴으로써 동백나무 군락지의 면모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2010년 4월 15~16일 이틀간 동백나무 식목행사를 동백숲 확대 차원에서 올해로 4회 째 실시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1,5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심어져 1사 1촌 자매결연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신홍 2리 동백나무 군락지는 수년도 많이 겪었다. 교통 시야를 가린다는 이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신홍 2리는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동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3개의 자연부락으로 2067가구에 561명이 살고 있다. 주로 감귵 농사를 지우며 축산업도 병행하는데 ‘동백고장보전연구회’를 창립하여 동백나무 활용방안 토론회를 거치며 마을 이름도 ‘동백마을’ (2007년 5월 6일)로 선포하고 ‘동백마을 방앗간’을 지어 동백기름을 생산, 소독도 울리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10년 2월 4일 동백원료 구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로 마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도에는 신홍 2리 동백나무 군락지 외에 ‘동백동산’이 제주시 선홍리 동쪽에 조성되어 있는데 제주도 천연기념물 제10호이다. 최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산악연맹’에서 한라산을 탐사한 결과 서귀포휴양림에서 수악계곡에 이르는 약 20여 킬로미터에 동백나무가 벨트처럼 이어져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규모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정영주 회원

내나무 갖기 캠페인

**“내 나무 한그루씩 가져보세요”**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에서는 2010년 식목주간을 맞이하여 3월 26일(금) 서울 대학교 마로니에공원에서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는 ‘숲, 지구를 지키는 초록 에너지’라는 주제로 당일 이곳을 찾은 시민들에게 각각 3그루의 묘목과 야생화를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묘목의 종류는 참죽, 백합, 산수유, 은행, 소나무, 유나무, 느티나무, 주목, 양벚, 대추, 라일락, 연산홍, 아팝나무 등 묘목 12종(7,100본)과 금낭화, 함미꽃, 벌개미취, 구절초, 원추리 등 야생화 5종(2,400본)으로, 총 9천 500여 본

이 배포되었다. 이날 행사장은 나무, 전시, 체험, 홍보 존으로 각각 구분되어 나무를 나누어 주는 행사 외에도 식목 퀴즈이벤트, 목재체험교실, 초록에너지 만들기, 환경 판넬 전시, 희망나무심기,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코너들을 제공하였다. 다소 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견학을 나온 유치원 아이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다. 몇몇 인기 수종은 행사 시작 몇 시간 만에 모두 소진되기도 하였다. 행사 진행을 도운 자원봉사자 김명설씨(ING생명)는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다음번 행사 때는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형성된 숲과 나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향후 지속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서영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산행! 이대로 좋은가?**



따듯한 햇살에 봄이 기지개를 편다. 겨우 내 읍주였던 나무와 꽃들이 산과 들에 피어난다. 봄이 되면 본격적인 산행계절로 계곡, 능선, 바위 위, 나무아래 어디라 할것없이 사람들로 꽃을 피운다. 국토의 65%가 산인 우리나라는 한달에 한번 산에 오르는 등산 인구가 이미 1,560만명을 넘어섰고 (한국리서치 ‘한국인의 등산관련실태와 단체실태’ 3월 발표자료) 2007년 20개 공립공원 방문객이 3,0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전국민의 2%가 매일 등산을 하며 전국민의 40%가 한달에 한번 산행을 한다. 정부에서는 이미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내나라 걷기 코스개발’에 투자를 한다고 공표할 해놓은 상태. 위에 나열한 이러한 수치보다도, 일요일 공휴일에 북한산이나 도봉산, 관악산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면 가히 그 삼일적인 파에 말문이 막힌다. 그속에서 산행을 해보신 분이려면 이게 산행이 아닌데 하고 느꼈을 것이다. 수많은 인파에 숲길은 넓어지고, 나무뿌리는 파헤쳐 지고, 산에서 볼래 숲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망 좋은 자리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기어올라가서 자리를 펴고 술을 마시는 사람, 아

예 천막을 쳐놓고 고스톱까지 벌리는 사람도 있다. 아직도 산행 문화는 갈 길이 멀다. 또 등산객에 의해 버려지는 쓰레기는 여기저기 흔랍스럽다. 무분별하게 널려있다.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본들이 많지만, 자원봉사자나 공원관리소의 수거하는 손길이 없다면 산은 쓰레기 천지일 것이다. 매년 전국의 산에서 나오는 쓰레기 수거비가 77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쓰레기를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정해진 숲길로의 산행이다. 인파가 많다면 등산화의 먼지아래 여기 저기 새길이 만들어지며 파헤쳐져 훼손되어가고 있다. 새길로 인하여 훼손된 숲은 또 다른 숲의 쇠퇴현상을 가져와 이를 복원하기에는 수십년의 세월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더군다나 숲속의 수많은 종의 친구들이 사라져 간다. 이미 가재들이 등산객의 등장에 계곡을 떠났고 산토끼도 산을 떠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숲을 사랑한다. 산행으로 인한 의료비용 대체효과가 연간 2조3,233만 원이라 한다. 우리의 건강이 숲에 있는 것이다. 숲을 보호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숲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식년을 시행하고 입산통제도 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람에 숲이 병들어가고 있다. 어느새 너나 할것없이 숲의 가해자가 된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자연보호 캠페인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장 쉽게 숲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정해진 숲길로의 산행과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산행이다. 그것이 그리 어려운 것일까? 김명구 회원기자

**‘새소망의집’에서 숲을 함께 만든다**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보랏빛 구절초와 흰 원추리가 눈을 반기고, 길을 따라 언덕을 올라서면 노란 꽃망울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산수유나무와 푸른 보라수가 걸음을 재촉하는 곳이 있다. 옥상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건너면 씨감자들이 토실토실 화단에서 자라고 있고, 다리가 아파 쉬려고 하면 이산화탄소를 저장해준다는 적삼목 목재의자가 지친 몸을 기다린다. 지난 3월 27일 토요일, 경기도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새소망의집’이 생명의 숲 회원들과 신한은행 자원봉사자들의 손에 힘입어서 웃을 같이 일했다. 아동복지시설 ‘새소망의집’의 이러한 변신은 (사)생명의 숲국민운동 ‘함께 만드는 숲’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한은행 봉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코팜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에 구분이 없었던 차도와 기숙사를 화단으로 나누어 안전사고를 막고 옥상, 마당, 화단 등에 녹지 공간을 조성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새소망의집 아동들도 참여하여 뜻 깊은 자리를 함께하였다. 총 150여명이 모인 이번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은 모두 7조로 나뉘어 활동을 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숙사동과 인접한 차량진입로에 보리수 24그루 심기, 마당에 상자텃밭 100개 배치, 옥상화단에 씨감자 40개 심기, 입구에 산수유나무 30그루 심기, 옥상벤치와 평상벤치 만들기, 화단에 구절초와 원추리 각각 50송이 심기 등이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앞서 지난 2월과 3월 초에 ‘내가 그러는 숲’이라는 활동을 통해 숲과 나무심기의 소중함을 미리 공부한 새소망의집 아동들은 배운 것을 보여주는 듯 ‘함께 만드는 숲’ 프로그램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뿐 아니라 파란 조끼로 단결심을 한껏 보여준 신한은행 봉사단도 마지막까지 웃는 얼굴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신한은행 정상조씨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회로 참여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며 이번 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신한은행 배정수씨도 “아이들과 같이 텃밭을 준비하면서 활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박서영 회원기자

### 북한산 케이블카 1인 시위에 참여하다



지난 2월 27(토) 북한산으로 '산타고' 2월 산행을 다녀왔다. 이번 산행은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1인 시위와 겹쳐서 다녀온 뜻깊은 산행이었다. 등산로 입구를 지

나 약 30분가량을 올라가니 인수봉이 그 웅장함을 드러냈다. "어린 아이를 얻은 듯하다"하여 부아산(負兒山) 또는 부아악(負兒岳)이라 불렀다는 인수봉은 북한산을 오르는 등산객들로 하여금 감탄사를 절로 나오게 만들었다.

인수봉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시간도 잠시 다시 백운대로 향하는 산행이 시작되었고, 몇 십 분이 흘렀을까 1차 목격자인 백운대피소에 도착하였다. 우리 일행은 산행을 잠시 멈추고 따뜻한 물과 함께 간식을 먹으며 얼었던 몸을 녹였다.

잠시 팔뚝 같은 시간을 보낸 후 백운대피소에 비치되어 있는 케이블카 반대 피켓을 수령하고 다시 산행을 시작하였다. 백운대 정상은 인간의 발길이 실은 듯 차갑고 매서운 바람으로 우리 일행을 맞았다. 흐린 날씨로 인하여 시야도 좁고, 기온도 차가워 대피하다시피 백운대 밑의 위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본격적인 케이블카 반대 시위를 위해 피켓을 펼쳐들고 고대하 회원님과 번갈아가며 자리를 지켰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길목이라 등산객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다. "북한산에 케이블카 만들어요?", "여기 케이블카 들어서...", "이런 땀살! 자연을 지켜야지 웬 케이블카...", "케이블카 타고 올라

오려면 산엘 왜 와?" 등등 시민들의 반응도 가지각색이었다. 많은 등산객들이 우리에게 질문도 하였고 짧게나마 답변도 드렸다.

1시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의 북한산케이블카 반대 1인 시위였지만,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았으며 응원에 주시는 많은 분들이 제정신이 더욱 보람된 하루였던 것 같다.

국가가 보호하겠다고 지정한 국립공원을 편의라는 명목으로 조금씩 개발하고 훼손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자연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채정원 산타고 회원

### 나무의사 '우종영선생님'이 들려주는 나무이야기

"나무는 빛이 디자인하고 바람이 다듬는다" 우종영선생님의 나무도 멋진 명언이다.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한지 2일 만에 대기자 접수까지 마감되었다. 신청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많은 분들이 멀리서도 일찍 오셔서 고맷다.

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무의 앞을 보면 그 나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데, 앞의 앞면보다 뒷면에 더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고 한다. 나무들도 사람처럼 드러내지 않는 부분에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는가보다.

3월의 식물교실은 공개강좌로 진행되었다. 평소 만나고 싶었던 나무의사로 부터 숲과 나무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듣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식물교실 식구들만 듣기엔 너무 아까워서 나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들의 예상보다 신청자들이 많아서 공지

다음에도 이런 강좌를 마련하여 나무와 숲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대를 키워가고자 한다. 이번 공개강좌의 수확이라면 우리 식물교실에 2명의 새 식구가 생겼다는 것이다. 마음 든든한 동지가 생긴 것 같아서 흐뭇하다.

4월의 식물교실은 천마산으로 야생화 탐사를 가기로 했고, 5월에는 천리포수목원으로 답사할 예정이다. 물론 식물교실은 생명숲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안운주 숲누리식물교실 회원

### 2010년 봄, 라온숲의 활동



~12시, 오후 2시~3시 30분으로 나누어서 숲 해설과 자연 체험을 전개했다. 오프닝 행사는 탐방할 시민들과 함께, 기후변화를 늦추는 목재 이용 프로그램인 나무 자동차 만들기, 쓰레기를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시키는 열쇠고리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나무 자동차 만들기는 '우리 집 자동차 하루 쉬는 날' 안내판 겸용으로, 플라스틱 소재에 파문혀 있는 요즘 아이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소재여서 좋겠다고 하며 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 바느질로 소품을 완성하는 열쇠고리 만들기는 아이 어른 할것없이 예쁜 작품을 만들어 갖는 것을 즐거워하며, 재활용의 가치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2010년 라온숲은 유난히 추웠던 겨울 끝자락 2월에 홍릉수목원의 수목 모니터링을 하였다. 청년숲 학생들이 그려놓은 GPS 지도를 이용하여 수목의 위치와 포인트 해설지점을 재설정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여러 회원들의 참여로 수목원 별로 나무의 종류와 위치를 정리하였다. 청년숲과도 자료 공유를 함으로써 지킴이 활동이 시민들의 요구를 좀 더 충족시킬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4월 4일 오프닝 이벤트로 시작하며 2010년 홍릉숲의 사계가 시작되었다. 올해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

일요일에 홍릉숲의 사계를 진행하면서, 홍릉수목원을 찾는 시민들과 숲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해 가는 자연을 바라보는 것도, 생명숲과 함께하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진우석 라온숲 회원

### 참여 프로그램 안내

2010년 5, 6월에는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 ■ 관악산에서 놀자~

- 일시: 매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 장소: 관악산 제1광장 (순속도서관 앞)
- 대상: 일반시민
- 참가비: 무료
- 신청 및 문의: 관악산 숲가꿈이 (070-4118-6154)

#### ■ 홍릉숲의 사계

- 일시: 매주 일요일 오전 10:30 / 오후 14:00
- 장소: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수목원
- 대상: 일반시민
- 프로그램: 홍릉숲 숲해설
- 참가비: 무료
- 신청 및 문의: 교육사업국 (02-499-6153)

#### ■ 청소년 생명의 숲교실

- 일시: 5월 11일 ~ 6월 17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 장소: 태화산 (서울대학교 학술림)
- 대상: 서울시 내 중학생 (회당 35명 내외)
- 프로그램: 다양한 숲체험 활동 ( '환상의 숲으로!' 우리는 이야기꾼)
- 참가비: 무료
- 후원: LG생명재단
- 신청 및 문의: 교육사업국 (02-499-6153)

#### ■ 찾아가는 목재체험교실

- 일시: 5월 19일 / 5월 26일
- 장소: 아동복지시설 안양 좋은집 / 파주 평화원
- 대상: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 프로그램: 끈을 담은 목가구 만들기
- 후원: 산림청
- 문의: 교육사업국 (02-499-6153)

#### ■ 신입회원을 위한 숲기행

- 일시: 6월 12일 (토)
- 신청기간: 추후 홈페이지 공지
- 장소: 충남 태안 천리포 수목원
- 대상: 2010년 1월 ~ 5월 가입회원 신청순 40명
- 프로그램: 수목원탐방 및 체험프로그램
- 참가비: 일반회원 7,000원 / 가족회원 14,000원
- 신청 및 문의: 커뮤니케이션실 (02-499-6196)

#### ■ 마을경관 문화여행

- 일시: 6월 12일 (토) ~ 13일 (일), 1박 2일
- 신청기간: 추후 홈페이지 공지
- 장소: 영월군 선암마을, 청령포, 동강 여라연
- 대상: 생명숲 회원 및 비회원
- 프로그램: 마을경관탐방, 마을해설, 산촌체험
- 참가비: 회원 30,000원 / 비회원 40,000원

- 후원: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협력사업
- 신청 및 문의: 교육사업국 (02-499-6153)

#### ■ 문화교육포럼 "기후변화와 숲교육"

- 일시: 6월 중순
- 신청기간: 추후 홈페이지 공지
- 장소: 생명숲 부피에름
- 대상: 숲해설가, 환경교사, 생명숲 회원, 일반 시민
- 프로그램: 기후변화와 숲교육
- 참가비: 무료
- 신청 및 문의: 교육사업국 (02-499-6153)

#### ■ 2010년 다음세대를 위한 나무심기 대상지 모니터링 및 풀베기 활동

- 일시: 6월 중
- 장소: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충북 충주시 산척면 외
- 대상: 일반 시민 및 기업
- 프로그램: 심은 나무 활착률 조사, 심은 나무 주변 풀베기 등
- 신청 및 문의: 정책기획실 (02-499-6214)

\* 본 행사의 일정 및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명숲(www.jforest.or.kr) 참조. 문의: 02-735-3232

광주생명의숲

## 회원에서 활동가로 거듭나기



숲은 사람을 존중하게 했고 사람은 숲속에서 문명을 만들어냈지만 문명을 호사스럽게 누리고 있는 현실에서의 숲은 병풍처럼 문명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것은 사막뿐일까요?

-문명앞에 숲이 있고 문명뒤에 사막이 남는다. (사투브리앙)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마음은 사철 시시때때로 숲으로 달음질치지만 현실은 갖가지 핑계며 이유로 인해 숲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고 그것을 스스로 정당화 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생명의숲 회원이 된지 5년이 넘었지만, 회원활동에 제대로 참여해본 적이 없는 저에게 생명의숲으로부터 반가운 초대がありました. 바로 회원활동가 양성교육이

었지요. 지난 3월 9일부터 숲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회원들이 모여 활동가 양성교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과 가치관을 갖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인 활동가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즐겁고 진지합니다.

교육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것과 참으로 버려야 할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함께 나누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가며 동참합니다. 사람에게 숲이 갖는 의미,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알지 못했던 숲으로부터 비롯된 문화들을 배우며 놀랍고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똑딱똑딱 목공과 실수업은 버려진 나무부막들을 이용해 생활소품과 장난감을 만들고 그것들이 대기중으로 배출해낼 뻔했던 탄소들을 가뭇뭇

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숲 가꾸기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 지와 숲의 탄소저장기능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떠들며 웃으며 서툰 솜씨로 만들어낸 투박한 작품들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작품이 되었지요.

자연은 우리 인류에게 끊임없이 베풀고 있지만, 인간은 그것의 고마움을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숲은 우리에게 숲이 베풀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숲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광주생명의숲, 그러한 숲의 요구를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밑받침 같은 회원활동가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사막을 남겨주지 않기 위해 생명의숲으로 갑니다.

조여진 광주생명의숲 회원

태백생명의숲

## 태백에서 온 소식



태백생명의숲에서는 2010년 2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에 한번씩 백두대간 자연학교에서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30~40명으로 신청을 받아서 1박 2일로 진행하며 프로그램은 천연염색, 목공예체험, 교실, 망우리 돌리기, 달집태우기, 산촌마을체험, 백두대간 걷기, 메밀떡 만들어먹기, 저녁 만들어 먹기, 눈썰매타기, 눈사람 만들기 (프로그램은 그 때마다 다름) 등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캠프를 할 예정입니다.

2월 26일에는 삼척 가곡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올무제거 행사가 있었습니다. 산 주변에 멸종위기 1급인 산양의 흔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눈이 다 녹고 낙엽이 많아 더 많은 발자국은 찾을 수가 없었지만 파릇파릇한 새 생명들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아쉽지 않았습니다. 곧 야생화 모니터링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3월 23일에는 하이원리조트에서 새집달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이원리조트 직원들 50명과 여러 자원봉사자들 포함하여 100명 정도가 참여하여 새집 달아주기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또한 4월 2일, 9일은 꽃씨와 묘목나누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2일은 사북 뿌라공원에서 10시부터 행사를 진행하였고 9일은 태백 시청광장에서 10시부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숲해설가 양성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강의를 있으며 이론 강의와 실습이 병행됩니다. 주로 태백생명의숲 사무국에서 이론 강의를 하고 실습은 주로 현장에서 나가 직접 만지고 보며 자연을 느끼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최순복 태백생명의숲 회원

생태산촌만들기

## 산촌유학 간 동진이

산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생태산촌만들기모임은 2006년부터 '산촌유학'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촌유학'은 도시의 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 한 학기 이상을 시골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지역의 작은 학교를 다니면서 시골 농가나 센터에서 생활을 하면서 마을의 어른·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2009년에는 약 10여 곳의 지역에서 '산촌유학'을 진행하였으며, 350여명의 아이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생태산촌만들기모임은 '산촌유학'에 관련된 사례를 연구하고 활동

가를 양성하는 등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산촌유학 참여 문의 : 02)747-6009

윤여진 생태산촌만들기모임 팀장

### 엄마 나 동진이야

요즘 센터에서 야구를 해. 아예 스포츠라면 보지도 않았는데 여기 와서 변한 것 같아. 이제야 행복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것 같아. 하지만 엄마가 보고 싶을 때도 많아. 보고 싶다고 생각하면 꿈에서 엄마가 나타났어. 그래서 난 엄마가 보고 싶으면 엄마 생각을 계속해. 친구들을 사귀면서 밖에서 뛰어노는 게 집에서 게임하고 TV보는 것보다 2~3배 더 낫다는 것을 알았어. 처음에는 괜히 엄마만 못 보고 책상만 하는 곳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친구를 사귀면서 좋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곳이라는 걸 알았어. 난 여기에서 제일 처음으로 아주 아주 큰 선물인 '행복'을 받았어. 엄마 여기에 보내주어서 정말 고맙고 너무나 무사 사랑해. -2009년 00산촌유학센터에서 지낸 강동진이 엄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목포생명의숲

## 유달산 숲체험 및 나무공예 만들기 체험



'희망의 나눔 봄꽃'으로의 초대 2010년 유달산 꽃축제'가 열렸다. 목포생명의숲에서는 이날 유달산 숲체험 및 나무공예 만들기 체험을 학생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4월 3일과 4일 이틀간 진행했다.

유달산의 소개와 함께 유달산에 서식하고 있는 나무들의 설명과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예쁜 풀꽃들의 이야기와 함께 생김새의 자세한 관찰 또한 잊지 않았다. 특히 아이들은 등산로 가에 파랗게 피어있는 큰개불알풀을 뜯보기로 관찰하고 이름이 불려진 이유와 작지만 너무도 예쁜 꽃의 존재에 대해 너무 신기해했고, 30~40대의 성인들은

길옆의 냇가 꽃의 향기를 맡아보며, 난생 처음 맡아보는 냇가의 은은한 향이 너무 좋으며 행복해 했다.

숲체험 참가자는 4살의 예쁜 아이부터 40대 후반의 성인까지 자율적인 참여로 숲체험 시간 동안 나이와 성별을 잊어버리고 행복한 숲의 이야기에 모두 푹 빠져 있었다.

아이들은 히말라야시대의 열매 조각을 보고 은했일, 풀잎, 비행접시 같은 히말라야시대의 열매를 확인하고는 너무 신기해 했다. 소나무과의 열매 조각 모습과 열매의 모습이 너무 달라 열매를 주워서 열매 조각을 하나씩 떨어뜨려 보이자 아이들과 참여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는 모습이다.

편백나무와 삼나무 숲에서의 상림욕 시간에는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피톤치드를 호흡기에 따라 마시며, 모두들 나무의 고마움을 느껴 보았다. 4살의 어린아이도 두 눈을 감고 나뭇 호흡을 하는 모습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따로 없었다. 숲의 고마움을 알고 지켜야 함을 시나브로 느끼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천사인 것이다. 나무공예 만들기 체험 시간에는 너무나 진지하게 나무 조각을 만지고 상상력을 넣어서 예쁘게 표현하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마냥 행복해 보였다. 성인들도 예쁘게 만들어 보고 자 조그만 아이들 틀에 끼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모두들 행복한 웃음꽃이 가득 피어난다. 봄꽃 만발한 행복한 날에 목포생명의숲이 진행하는 숲체험에 더 없이 큰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 했다.

배서영 회원기자

는 예쁜 풀꽃들의 이야기와 함께 생김새의 자세한 관찰 또한 잊지 않았다. 특히 아이들은 등산로 가에 파랗게 피어있는 큰개불알풀을 뜯보기로 관찰하고 이름이 불려진 이유와 작지만 너무도 예쁜 꽃의 존재에 대해 너무 신기해했고, 30~40대의 성인들은

## 언제 보아도 눈부신 백색의 신부, 목련

- 목련과의 열매는 넓은 잎 큰키나무 *Magnolia kobus* -



**'추운 북쪽을 향해 꽃을 피우는 특이한 나무'**  
우리 주변의 나무들은 자람에 있어 꼭 필요한 태양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꽃을 피우지요. 하지만 우리 주변의 학교나 가로수로 피어 있는

목련을 자세히 보면 태양과 반대 방향인 추운 북쪽을 향해 꽃을 피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향이라고도 불리는 목련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추운 겨울부터 봄을 준비하던 목련의 꽃봉오리는 겨우내 햇볕을 잘 받은 남쪽의 꽃봉오리 껍질이 추운 북쪽의 꽃봉오리 껍질보다 더욱 튼튼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방향의 튼튼한 꽃잎이 먼저 함하게 열리고 그에 비해 햇볕을 덜 받아 힘도 적고 늦게 열리는 북쪽의 꽃잎은 아래로 기울기 때문에 북쪽을 향해 피는 것처럼 보이는 거랍니다. 또한 목련은 향기도 좋아서 예로부터 조상들은 목련 장작으로 불을 때 집안에 향기도 내고 병마도 쫓는다고 하여 집집마다 목련 장작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쓰임새도 많았던 목련은 힘들게 겨울을 이기고 이른 봄 양상한 가지에 잎 보다 먼저 아름답고 향기도 좋은 하얀 꽃을 피우지만 피어있는 기간이 짧아서 아쉬움이 많은 나무랍니다.

### '두 여인의 이루지 못한 슬픈 사랑...'

옛날에 북쪽 바다의 신을 사랑하는 공주가 살았습니다. 하지

만 신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이를 알게 된 공주는 이를 수 없는 사랑임을 깨닫고 바다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북쪽 바다의 신은 공주의 사신을 꺼내어 양지바른 곳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 후 바다의 신은 자신 때문에 죽은 공주를 생각하며 늘 괴로워했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 보던 신의 아내 또한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며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신은 자기 때문에 생명을 버린 부인을 불쌍히 여기며, 먼저 죽은 공주의 무덤 곁에 아내의 무덤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얼마 뒤 공주의 무덤 옆에서 하얀꽃이 피어났고 아내의 무덤 옆에선 붉은 꽃이 피어났지요, 이것이 바로 백목련과 자목련이라고 합니다. 북쪽 바다의 신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버린 두 여인의 넋을 기라듯 피어난 두 꽃은 북쪽 바다의 신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려는 것처럼 모두 북쪽을 바라보고 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김선웅 신리포수목원



일러스트 황지현 회원

## 우리 농장에서 자라는 '속새' 이야기



8년 전 쯤이었을까? 처음으로 특이한 식물을 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이국적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야생의 초임을 뒤에 알았다. 작은 대나무 줄기처럼 속은 비고 마디마디를 형성하여 잎도 없이 줄기만 50cm 가까이 자란다. 겨울, 휴한에도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브라운색으로 몸을 보호하다가 봄이 되면서부터 초록색의 싱그러움을 되찾는다.

이름 또한 속새라 하니 언뜻 들으면 '속새'로 들려 식물이름을 묻는 지인들은 우스갯소리로 "아! 속새를 떠나라."라며 깔깔 웃기도 한다.

그렇게 연못가에 멋스럽게 자리매김하면서 깊은 풍경까지 자아내어 주었으니, 속새의 특성과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속새는 놀랍게도 4억 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카본기에는 전 지구를 덮고 있었던 식물이라 한다. 속새의 학명, 'Equisetum'은 라틴어 equus '말'과 caeta '꼬리털'의 두 낱말로 이루어진 합성어로서 속새가 말꼬리의 털과 같이 생긴데서 유래한다고 한다. 말꼬리를 직접 본 경험이 없으니 만져보면 그저 거칠고 뻣뻣한 느낌으로만 상상할 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속새가 지구의 고생대인 데본기와 카본기(석탄기)에 걸쳐 대량 양식식물로서 이 지구를 덮어왔다는 사실이었다. 그 시대를 풍미했던 우람했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는 곧잘 눈을 감고 그때에 젖어보는 등 상상의 나라 속에서 신비스러움을 경험하곤 했다. 인간 출현 이전, 태고 때부터 이 지구에 나타나 지금에서까지 견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스럽고 외경스러움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 오늘날엔 작은 크기의 식물로서 전락하고 말았지만, 속새는 이렇게 우리 농장의 보물이 되어갔다.

하지만 엄청난 번식으로 지금은 고만에 빠졌다. 속아주는 일이 더해져 관리에 번거로움을 더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속아주는 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뿌리줄기를 발견하면서 그 궁금정은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다. 또한 포자가 바람에 날리면서 암수가 수정하고 번식하게 된다는 사실까지, 우리 농장에서 보물의 자리를 지켜왔던 속새는 이런 이유로 이젠 퇴색의 운명에 놓여 있다.

면면이 이어온 엄청난 생명 실존자로서의 '속새', 이 신비한 식물을 아주 가까이 할 수 있음을 두고 단지 관리에 어렵다는 이유가 그 소중함의 가치를 감응할 수 있겠는가?

속새는 지파식물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을 뿐더러 약용과 관상적 가치 또한 높은 식물임에 틀림없다.

정미영 회원

## 얼레지



우리의 자생식물인 얼레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얼레지라고 하면 자꾸 '얼레지의 여왕' 이미지가 떠오르고, 가요 '해운대 얼레지'가 생각날 것이다.

얼레지는 백합과 여러해살이식물로 봄이 한창인 때 전국 의 산야에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이름에서도 그렇고 꽃의 생김새가 외국에서 건너온 허포 부라진 남새가 나지만 얼레지는 엄연히 우리나라 자생식물이다.

우리의 야생화가 은근하고 순수한 모습이라면 외국에서 들어온 화훼식물은 대부분 화려하고 정열적이다. 라일락과 수수꽃다리가 그렇고 장미와 해당화가, 그리고 백합과 나리의 느낌이 그렇다.

그런데 얼레지의 꽃은 은근한 기운이 있으면서도 화려하고 정열적이다.

마치 한 마리의 홍학이 내려앉은 모습 같기도 하고 인기그림 '소녀시대'의 발랄한 몸짓을 연상하게도 한다. 전국적으로 더러 군락지가 많아 덜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들이 있을 미처 내밀지 않은 조금은 을씨년스러운 산야에 얼레지 군락이 꽃을 피운 모습은 과히 환상적이다.

얼레지는 생리적으로 비늘줄기인 뿌리가 깊어 산에서 캐어 이식할 생각은 애당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번식은 씨앗으로 하는데 파종한지 5-6년이 걸려야 꽃을 피운다고 하니 키워서 꽃을 보려는 시도는 상당한 인내를 요한다고 하겠다. 얼레지는 아무래도 야생에서 저절로 자라는 것이 제격인 모양이다.

올해의 봄은 남쪽만큼이나 번덕스럽고 가슴이 막막한 사 고가 많아 얼레지가 빛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 잔인한 봄이 빨리 지나가고 평온이 왔으면 좋겠다.

이병환 회원

④

광고

의 함께하는

## 청소년을 위한 생명의 숲교실

숲 환타지, 상상력을 자극하다

『청소년을 위한 생명의 숲교실』은 숲속에서 놀이와 교육과정을 혼합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숲과 친숙해지는 과정에서 숲에 대해 배우고 숲과 환경의 중요함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2010년에 준비한 청소년을 위한 생명의 숲교실은 청소년의 흥미와 상상력을 발현하기 위해 "숲 환타지, 상상력을 자극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각 교과목이 추구하는 자랑점을 연결한 종합적 교과 프로그램 개발로 '창의·인성 교육' 기본방향에 부합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장소 : 태화산 (서울대학교 학습림, 경기도 광주 도척면 소재)
- 시기 : 5월~6월, 9월~10월 매주 화요일, 목요일(상하반기 각 10회 진행)
- 대상 : 서울시대 중학생, 최대 35명 내외
- 참가비 무료 (차량 및 점심식사 제공)
- 프로그램 1. 환상의 숲으로!!
- 2. 우리는 숲이야기꾼
- 담당 : 김태영 활동가 (02-499-6153)

주최 : LG상록재단 주관 : 생명의숲 후원 : LG상록재단



모감주나무 - 꽃이 피어 아 꽃이 피었구나 했다. 그 사이에 있고 없을 묻고 답함이 스쳐갔다. 그 꽃이 살짝 입힌 노란색 파리로 새 옷 입은 것을 보고서야 꽃은 지는게 아닌 것을 꽃이 하나인 것을 내 눈길이 찾아 있었다. 이천삼년가을. 윤형근 회원

나무의 고통

최영도 회원

나무에게도  
내면의 고통과  
외면의 아픔이 있다  
  
속을 파먹어 들어가는  
애벌레의  
집착이 있는가하면  
  
걸을 파먹어 가는  
딱따구리의  
집요한 욕구가 있다  
  
딱따구리는  
내면의 고통을 치료해 준다  
또 다른 아픔을 더해 준다.  
  
2010. 4. 2 청계산에서



일러스트 황지현 회원

회원가입인사

안녕하세요.  
머칠 전에 가입해서 주옥~ 들락날락하는 신인입니다  
생명의숲 회원이 된 걸 뜻깊게 생각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행사에도 참여하고 자원봉사활동도 참여 하겠습니다.  
그동안 녹색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주시는  
생명의숲 관계자분들~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는 지도 함께 하겠습니다.  
최은자 회원

올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러브그린이라는 멋진 프로젝트를 알게 되면서  
계 확공과 지의 결혼 준비는 아주 특별해졌습니다.  
친환경 결혼을 위해 재생용지 청결장 준비며,  
친환경 드레스, 러브그린에 기부하기 등...  
을 위해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숲을 통해 더욱 든든해진 우리 커플의 사랑만  
큼 더욱 건강해질 우리의 숲을 기대해봅니다.  
저희 예비부부도 작게나마 꾸준히 노력할지예요 ^^  
조현정 회원

생명의 숲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 역습이 날로 심해져 가고 있는데 별다른게  
변화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또  
반성하게 됩니다. 작은 행동으로 이런 지구를  
구하긴 어렵지만 이렇게라도 등치지  
않으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없기에  
뒤늦게 가입하여 동참하고자 합니다.  
숲의 귀중함을 깨닫고 지구의 온난화를  
늦추는데 함께 하고 싶습니다.  
좋은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김세영 회원



옛 앨범을 보다가 우연히 사진  
옆에 있는 작은 들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  
순간 왜 그리고 궁금했는지, 하지만! 아무리  
사진을 찾아보고 검색을 해보아도 이 이름을  
들꽃의 정체를 찾을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포기하고 보기만 해도 청순해 보이는  
이 들꽃을 보고 있으니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  
더군요. 숲의 존재가... 바로 이 들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곁에 있어서 어쩌면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생명의 숲. 함께 하는 즐거움~!  
이젠 더욱 자주 찾아보고 인사 올릴것입니다...  
박연숙 회원



이렇게 좋은 사이트가 있는 줄 몰랐네요..  
좋은 정책에 대해 알고, 직접 참여할 수도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더 좋은 것 같군요..  
산의 나무 자연 속에서 야유키우고자 왜곡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정말 잘됐다 생각이네요..  
주변 편의 시설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싶었는데  
오히려 낭비가 줄어드는 것 같고, 늘 편우공에  
시달렸는데 머리로 맑아지고 산책도 즐기게 되어  
생활 자체가 활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술과 가까운 곳에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숲을 가꾸는 일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동참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윤종숙 회원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무와 숲을 좋아해서,  
나무심기나, 식물 가꾸는 일, 숲 여행 등을 많이  
했었는데 4월을 맞이하여 이런 좋은 곳을 알게 되어  
너무 반갑고, 저의 생활 속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활동 등을 많이 하고 싶고,  
주위 가족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은 국민이 숲을 사랑하고 가꾸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조정배 회원

생명의 숲의 작은 일원이 되어서  
기분 좋습니니다!...감사!  
마음 한 편에서 항상 동경되었던...  
그곳 신하를 이쁘게 옷 입혀주는  
생명의숲..... 그곳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임기병 회원



인터넷 검색 하다 링크가 있어 오게 되었습니다  
숲이라는 홈 재목이 흥미롭네요 ^^  
숲 캠페인, 이슈, 자원활동 등 숲의 맑은 공기를  
마시는 듯한 느낌이에요  
제주도에 살다 서울 도심지역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차들로 꽂 찬 도로와 매연이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군요  
숲처럼 맑은 공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요  
가끔 오름에 오르는데 정상에 올라 마시는  
공기는 정말 상쾌하죠^^  
좋은 것 많이 알아갈 것 같은 기분이에요  
새로운 홈페이지를 알아가요~  
전혜정 회원

어릴 때 산 속 마을에서 자라서 그런지 도심 한복판  
에서 생활하지 20년째인데도 제대로 숲 쉬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덕분에 제 망 청기에는 화분이나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지요.  
맑은 공기를 바라면서 화분을  
가꾸는 게 제 생활의 활력입니다.  
좋은 정보도 가져가고 좋은 공기와 환경  
만들기를 실천하는 활동가로 꼭^^  
이어갈까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김은정 회원



생명의 숲에 들어와 보니 내가 숲이 된 듯 하네요.  
나무를 흔드는 바람소리가 들리고  
순결한 향기에 코끝이 식원해집니다.  
생명의 숲에서 숲의 신성을 배우겠습니다.  
박래일 회원

일러스트 황지현 회원

[월간숲]의  
유료독자가  
되어주세요!

생명의숲 회원님, 회원여러분  
그 동안 정회원님들께 무료로 발송해 드렸던 월간숲이 2010년 4월부터는 회원님들께 무료로  
[월간숲]을 보내드릴 수 없는 죄송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월간숲]은 산지(북)에서 계속  
발행할 계획이므로, 구독을 원하시는 회원님들은 유료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숲을 알리고 숲에 대한 애정을 키워가고 있는 [월간숲]이 계속 발행될 수 있도록  
생명의숲 회원님께서 유료독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신청방법

1년 구독료:44,000원(생명의숲 회원 20% 할인 혜택)  
전화로 신청 : 02-722-4311 (산지북 출판사)  
이메일 신청 : forestbook@naver.com  
기사문의 : 생명의숲 02-499-6213

## 상상의 힘으로 사막을 건너다



아침마다 산천초목이 새롭게 다가온다. 화사하게 화장을 할 요량인지 색색의 꽃들을 끼고 앉았다. 민산 가까운 숲 모두 생기 가득한 표정으로 눈 맞추자고 한다. 겨울의 긴 완행(緩行)을 헤쳐온 넓은 초록의 속마음을 나는 질게 받아들였다.

계절의 한 바퀴를 돌고온 5월은 숨이 가쁘다. 숲은 그 가쁜 숨들을 정해진 이치에 맞게 차곡차곡 걸러서 내쉬고 돌아쉬기를 반복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운은 성장의 질주를 시작하여 그 절정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에 내달릴 것이다.

남쪽 낮은 땅에 바짝 엮드려 올라와 처음 만나는 나무 전까지도 콧잔등을 부린다. 순간 손잡이가 햇빛을 가르며 하늘로 솟아 오른다. 다시 평야를 가로질러 산맥을 힘차게 올라 타 좌우를 편애하지 않고 보듬어 오르내리고, 높고 깊은 사이마다 좁은 안길들 미끄러질듯 온 천지에 생기(生氣)가투를 바람에 묻혀 낸다. 빠르기가 질풍노도(疾風怒濤)같고 파란만장(波瀾萬丈)한 변화의 체험이다. 이 기적의 풍경을 보기 위해서 별도의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지금 그 한 가운데 서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종류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만물이 생동하고 살찌는 풍경일수록 숲이 없어지고 생명이 패배처지는 현장도 함께 늘어간다. 쓸쓸한 상상. 주로 숲이 우거진 곳에서 들쭉이는 이런 기운들이 불편한 상상의 시작이다. 그러한 기운의 가장 대표적인 골프장시 설이 어느새 전국에 450개가 넘게 자리잡았고 그 숫자

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들어서게 되는 시골들은 또 얼마나 많은 숲의 영역을 훼손할지 우려스럽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만 여러 조각들로 분산된 우리 바람들은 공감대의 조각퍼즐을 맞춰보기도 전에, 잘 짜여진 계획과 완성된 '데저명품'에 무력하기만 하다. 어쩌면 우리는 그럴듯한 정경에 사로잡힌 나머지 무섭거나 흥하지 않는다. 심리장치를 작동시켜 스스로 순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는 동안 인공의 다림질을 마친 빼어난 시설들은 생태순성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처럼 마무리 된다. 이쯤 되면 우리는 현실을 적극 반영한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

생목과 뿌리를 통털 자르고 캐내버린 자리에 균일한 웅덩이 깔린 것을, 동양화의 여백을 흉내내듯 당당하게 비워져 '그들만의 리그'가 열리는 것을, 성장의 기운을 다 만지 않아도 만년초목을 자랑하는 것을, 그래서 생육의 터전과는 무관한 '녹색사막'인 것들을 부지런히 상상해야 한다.

봄과 여름이 조화롭게 섞여내는 5월의 기운은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는다. 우리 주위의 숲들을 아름답게 치장해 주는 건 물론이고, 불타거나 뜯겨진 자리에도 새살을 입히고 생기를 불어 넣어 준다. 그러나 미처 지켜주지 못한 숲의 속살은 계절감을 감각하지 못하고 생채기로 남아있다. 더 이상의 이런 녹색사막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머뭇거림을 씻어내고 숲에 희망을 심어야 한다. '숲은 누구에게나 고향이다'라는 힘들이지 않아도 되는 상상의 풀한 포기들.

임흥은 나무그래픽스 대표

## 숲을 사랑하는 후보

지구가 온실에 있는 것처럼 따뜻해지고 있다. 여기 저기서 지구가 더워지는 문제로 범석들이다. 길어진 여름과 함께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다고 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학자들은 지구가 뜨거워져서 결국 많은 생명체가 멸종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벌레들도 보이고, 이 때문에 농작물과 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다. 지구온난화문제는 숲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게 한다.

숲은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는 '자연공기청정기'이다. 일과 휴가와 뿌리 가득 물을 담아 홍수와 가뭄을 막고, 더운 여름날이면 물을 증발시켜 기운을 낮추고,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잡아 가두고, 산소를 내뿜는 기능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숲은 그 자체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좌우하는 국민경제적 가치가 되고 있다. 숲은 수많은 나무와 풀, 헤아릴 수 없는 미생물, 곤충, 야생 동물들이 모여 사는 사회이다. 숲은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자연이 낳은 최대의 걸작이다. 나무와 숲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경치,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우리에게 안겨 주고 있다.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기상이변이 반복되며 지구 곳곳에 큰 재앙이 반복되고 있는 이때에 나무와 숲은 지구를 지키는 초록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숲은 지구온난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다. 왜냐하면, 나무는 광합성 과정에서 온실기체 중에서도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숲과 나무는 대기온도조절, 산소공급, 수질개선, 먼지흡착, 소음감소 등 우리 삶에 무수히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숲은 보물섬과도 같다. 이 같은 숲의 공익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73조원에 이른다. 국민 1인당 숲으로부터 연간 151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6월 2일 지방선거가 이제 곧 다가온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과 후보들은 국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 마을, 지역과 도시의 4년 동안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많은 후보들은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보잘것 없는 개발청사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개발로 인해 많은 숲을 훼손하는 정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숲을 사랑하고 숲을 늘리고 숲을 지키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숲이 사라지면 미래도 사라지고, 숲이 있어야 숲 밖의 생명도 함께 살 수 있다. 한 번 잃은 생명은 되살리기 어렵듯, 한 번 잃은 숲은 되돌리는 데 몇 십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미래를 위한 진정한 투자는 바로 숲을 가꾸고 지키는 일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녹색바람을 주도하도록 하자,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진정한 숲을 사랑하고 숲을 보전하고 우리 주변의 숲을 늘리겠다는 후보인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자. 지구온난화문제로 우리의 미래가 위협당하고 있는 지금 숲을 사랑하는 후보의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김인호 신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녹색휴양의 윤리 : 흔적 남기지 않기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물질만능 사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 단어들이다. 현대 사회의 이러한 산물들은 우리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으나 현대사회의 산물들은 스트레스, 만성피로, 녹색갈증 등 육체적·정신적 압박감에 의한 문명병이라는 부산물을 낳고 있다. 이제 현대사회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생존방식을 찾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퍼져가고 있는 '생태주의', '슬로우시티(Slow City)', '로하스(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웰니스(Wellness) 등의 「자연」, 「건강」, 「느림」에 가치를 두는 대안운동들이 현대적 생존방식의 사회적 트렌드로서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따라 여가 분야에서도 역시 건강과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휴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도처에서 좋은 숲을 대상으로 숲길, 치유의 숲, 숲탐방 등 다양한 숲을 활용한 휴양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기존 숲들도 이러한 휴양활동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녹색휴양의 공급요소로서 청정자연·생태환경을 지닌 좋은 숲들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녹색휴양의 기회 제공은 분명 국민의 보건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러나 숲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많은 사업과 이용에 대해 몇 가지 염려가 앞선다.

첫째, 공간조성 사업에 있어 우리는 길지 않은 개발의 역사 속에서 개발기법의 단순한 모방과 유행적 도입에 따른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자연생태 기반의 숲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과거의 몇몇 수동적이고 맹목적인 도입으로 인한 우리의 시행착오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어 시행착오는 know-how를 줄 수 있지만 숲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 시행착오는 know-how가 아닌 자연생태계의 훼손이라는 피해를 먼저 안게 된다. 많이 공동체적 고민을 통해 개발의 흔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발윤리가 정말 필요하다.

둘째로, 숲을 이용하는 우리는 이용자들의 태도이다. 사실 숲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존재 자체만으로 불편함의 시작이다. 숲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이용과 재산상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숲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이용윤리 즉, 가급적 이용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다. 결국 인류의 생존을 위해 숲을 이용하겠다는 인간의 욕심에 앞서 이용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서 자연에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는 녹색휴양의 윤리가 필요하다.

유기준 상지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숲과 건강한 삶 **숲과사람들**

'숲과 사람들(Forest & People)' 광고주 찾기

회원이 주인 되는 신문,  
'회원의 힘'을 보여주세요.

회원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애정을 보내주시면 소박하지만 재미난 멋진 신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회원이 주인 되어 만드는 '숲과 사람들(Forest & People)' 제작에 광고후원을 바랍니다.

문의 : 02-499-6198(생명의숲 사무처 회원팀)

WWW.ECOPERM.CO.KR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꿈꾸는 사람들

(주)에코퍼م

www.ecoperm.co.kr

02-927-7250

